

이문화(異文化) 수용모델로서의 ‘처용설화’ 재해석

-일본 ‘이인론’과의 비교를 통해

김정하*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처용의 정체와 역할
 - 2. 이문화의 수용
 - 3. 이문화의 현대적 수용
- III. 결론

I. 서론

한국문학, 혹은 한국화를 통틀어 ‘처용’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도 찾기 어려울 듯싶다. 그가 처음 출현한 곳으로 전해지는 항구도시 울산이 십 수 년째 거행해온 축제 ‘처용제’가 오늘도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끊임없는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런 논란의 결과 지인 셈이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처용의 정체¹⁾를 고찰하려고 나선다면 우선 기존의 통설을 재검토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1) 처용의 존재에 대한 기존설로는 ① 벽사가면의 인격화 [現人陽邪神] 설, ② 반중앙적 지방 호족의 아들로서의 질자(質子: 아들을 인질로 보냄)설, ③ 이재술(理財術)을 지녔던 이슬람 상인설, ④ 호국호법룡의 불교 상관 인물설, ⑤ 무격(巫覡) 또는 무격의 몸주 [主神] 설, ⑥ 풍월도적 미

하는 수고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이나 『삼국유사』의 문면해석에 치우쳐온 그 동안의 논의는 처용이 누구인지를 구명하는 데만 골몰해왔다. 정체성(identity)이란 고정된 존재(being)가 아니라 생성되어가는 무엇(becoming)이라면, 다소 에둘러 가더라도 그 “누구”를 둘러싼 주변상황이나 인물과의 “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즉, 처용이 ‘이슬람 상인’이나 ‘지방호족의 자제’냐, ‘무속인’이나보다 그가 신라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이야말로 정체성을 파악하는 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기존논의들도 처용이 기존의 인물들과는 다른 존재, 즉 ‘이인(異人)’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해왔다. ‘이인’이란 어딘가 외부로부터 사회 내부로 들어와 기존의 범상(凡常)한 관념과 관습과 다른 문화를 선보이는 존재다. 따라서 이인의 출현은 기존 사회를 반성케 함으로써 쇄신을 이루어내거나 문화적인 혼종 내지 접변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 글은 처용의 수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문화수용의 모델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논의와 일본의 ‘이인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처용의 정체와 역할

1) 이인으로서의 처용

‘이인(異人)’은 기존 인물과 다른 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여겨지는 존재이다.²⁾ 『삼국유사』 권2 ‘처용랑 망해사(處容郎望海寺)’조에 등장하는 처용은 그 아버지인 동해용 및 후반부에 등장하는 역신, 산신(지신)과 더불어 ‘이인’ 무리 중의 하나다. 처용은 화랑, 불자(佛子) 또는 지방호족의 자제, 이슬람 상인 등으로 보는 설과 더불어 당대

특신앙을 갖고 있는 화랑설 등이 있다.

2) 빅토르 터너는 전자를 ‘주변인’, 후자를 ‘아웃사이드’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했으나, 여기서는 같은 속성을 지닌 타자로 보고자 한다.

사회를 위한 곳으로 사귀를 물리치고 복을 비는 무의(巫醫)라는 견해가 있다.³⁾

일찍이 손진태는 한국의 이인을 알영부인을 낳은 계룡을 비롯해 후백제 견훤을 낳은 지렁이, 백제무왕을 낳은 지룡(池龍), 경주최씨의 조상인 금돼지 등으로 꼽았다.⁴⁾ 특히 석탈해는 바다에서 동해안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해용의 아들이자 용성국 왕자를 자처하는 용(龍)의 후손으로서의 ‘이인’이다.

용(龍)의 후손인 ‘이인’은 신화나 설화에서 흔히 이족혼(異族婚), 즉 지모신(地母神) 내지 대지(大地)와의 관계 맺기나 합일에 이르는 존재다. 동해를 건너온 용성국의 왕자 탈해는 죽어 동악(東岳)의 신이 되며,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알영부인이 죽은 후에는 큰 뱀이 대지에 묻히는 것을 방해하며, 지룡의 아들인 무왕은 마를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다.

그런데 ‘용(龍) 계룡의 이인’은 정룡(井龍)이든 해룡(海龍)이든 택룡(澤龍)이든 모두 물과 관련돼 있다. 물이 이전의 낡고 오염된 것을 새롭고 신성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정화와 생명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⁵⁾을 음미해보면 이인과 관련된 사건은 구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처용은 국토의 일부인 동해에서 나타났으니 소외된 집단의 일원이라 볼 수도 있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무의(巫醫)라 볼 근거도 충분하다.⁶⁾⁷⁾ 아무튼 그는 신들의 영역에서 잠시 인간의 영역으로 나왔다가 다시 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일견 그는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이나 신라인들에게 멸망을 일러준 산신, 지신과 동질적인 듯 보이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역동적이고 유능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는 동해용의

3) 과연 훗날 처용이라는 신격의 가면을 쓰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역신(疫神)을 물리치는 벽사(辟邪) 의례를 국가 차원에서 치렀다. 그러나 신라나 고려, 조선 시대의 처용무는 각자 당대적 신앙체계 및 철학적 배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그 기원이 신라시대의 처용설화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4)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손진태선생전집6, 1981(『학풍 2~3』, 1949년판 영인본), 79~96면.

5) 홍경표, “용신설화와 그 상징체계 시고”, 한국전통문화연구1, 1985, 262면.

6) 역사학자 에리크 리드도 “근대 이전에는 이인에 대해 신=인간이라는 선택지만이 존재했다. 그 리스인들은 이인, 특히 걸인에 대해서도 융숭하게 대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했는데, 이는 이인이 신이거나 신의 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인은 환상적인 존재다”라 했다.

7) 김열규, “『처용랑 망해사』의 민속학적 의미”, 처용연구, 1985, 19면.

아들인지라 재생이라는 바다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스스로없이 경주로 가서 왕을 도와 정사를 보필하며 역신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 일본의 ‘이인론’

일본에서의 이인(異人)의 원형은 오리구치 시노부가 ‘마레비토[マレビト]’라 부른, “정해진 시기에 바다 저편의 영원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기 위해 오는 신”일 것이다. 오리구치는 이 신의 관념을 아키다현의 정월 보름 행사인 ‘나마하게’나 오키나와의 음력 6월 풍년제에서 펼치는 행사 ‘아카마타 쿠로마타’에서 섬기는 신에서 발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말로 이인은 ‘방문신(訪問神)’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떻게 그리 쉽게 인간과 신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시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화가 태고 이래 인간의 사고나 생활방식을 투영해온 서사물인 것처럼, ‘신’으로 관념되는 존재란 결국 인간의 원망이 투사된 존재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일본에서 ‘이인론(異人論)’을 전개한 코마쓰 카즈히코는 이인에 대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설정해놓은 바 있다. 그의 소론에서도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이인’과 ‘방문신’이 동일시될 근거는 충분하다.

이인으로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존재는 어느 사회에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는 종교자나 기술자, 걸인, 관광객으로, 그들은 이인으로 왔다가 이인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카테고리의 이인은 다른 지방에서 와서 정착하는 존재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고 그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취급되기를 원해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남에게 이인으로 취급받지 않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인이 아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존재는 사회집단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이인으로, 범죄자나 장애인처럼 차별, 배제를 받아 집단의 주변이나 외부로 쫓겨나는 존재를 말한다. 네 번째는 공간적으로는 멀리 있고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존재들로 상상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신도 여기에 포함된다.⁸⁾

‘방문신’의 대표적인 예로는 오키나와현 아에야마군 다케토미정에서는 ‘미로쿠[彌勒]신’을 꼽을 수 있다. 이 신은 음력 8월부터 9월 사이 기해일부터 3일간의 계절제에 풍작

8) 小松和彦, “異人”, (小松和彦·關 敏 編) 新しい民俗学へ, セリカ書房, 2002, 213~21414面.

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섬사람들은 해변에 무대를 마련해놓고 바다 저편에서 방문하는 이 신을 기다리는데, 낙일이 강물에 빛날 즈음 종자를 거느린 미로쿠신이 해변에 모습을 나타낸다. 부드러운 표정에 황금색 옷을 입고 검은 허리띠를 맨 미로쿠신은 오른손에는 군사를 지휘하는 부채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⁹⁾ 그 뒤로는 샤미센의 음곡에 미륵절을 합창하는 사람들과 벼, 밤, 기장 등 오곡뭉음을 든 소녀, 술병과 나무잔을 든 소녀도 따른다. 무대로 올라와 좌정한 미로쿠신 앞 해변에서는 남자들이 씩씩한 사자춤 등을 공연하거나, 여성들이 춤을 봉납한다.¹⁰⁾

그 밖의 ‘방문신’으로는 아키타현의 ‘나마하계’, 미야기현의 ‘화재예방신의 사자’, 오키나와현의 ‘마운가나시’, 카고시마현의 ‘토시돈’, 이시가와현의 ‘멘사마넨토우’, 효고현의 ‘에비수’, 아이치현의 ‘부동명왕’, 후쿠시마현의 ‘칠복신’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선달 그림이나 정월 초하루 등 정해진 날에 마을 사람을 방문하여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준다. 특히 아이치현의 ‘부동명왕’은 인도에서 유래한 신으로, 마츠리에 참가한 사람을 조릿대 가마에 목욕시켜 정화시켜준다.¹¹⁾

2. 이문화의 수용

1) 이인의 수용과 배제

처용설화에 나타나는 역신, 산신(지신)은 모두가 처용과 같은 처지의 이인이지만 처지는 각자 다르다. 동해용은 현강왕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왕의 처사에 화해하기에 이른다. 역신은 처용의 아내를 범했다가 처용에게 감화되어 스스로 물러난다. 산신(지신)은 나라의 멸망을 일러주고자 현신하지만 결국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것처럼 이인들과의 접촉은 수용되기도 하지만 배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인은 ‘악하니까 배제한다’기보다 ‘배제했더니 악행을 저질렀다’는 후과론(後果論)적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아 본래 선과 악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수용되느냐 배제

9) 원래 이 미로쿠신의 모습은 1791년 베트남에 표착했던 일본인이 현지에서 본 풍년제 신의 가면에 서 분을 따서 야에야마군도의 마츠리 신의 얼굴이라며 전국에 보급했다고 한다.

10) 芳賀日出男, 『日本の民俗』,クレオ, 1997, 30~37면

11) 芳賀日出男, 위의 책, 38~47면.

되느냐에 의해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일찍이 현용준이 보고한 ‘제주도 도깨비’는 부신(富神)이자 풍어신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역신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제주도 도깨비는 특히 미녀를 좋아해서 교구를 요구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므로, ‘도채비(도깨비) 퇴송곳’인 ‘영감(令監) 놀이’를 해야²⁾ ‘도깨비장난’을 막을 수 있다.

또 ‘동티’를 안겨주는 ‘손’ 역시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병과 재앙을 안겨주므로 잘 달래서 떠나보내야 한다. 경남지방의 민담 중에서도 ‘손님 접대 잘해 잘 된 사연’이나 ‘창녕 도천면 새뭇 전설’에서도 이인으로 등장하는 “일곱 마상객(馬上客)”을 후하게 대접해 부자가 됐다거나 “증”을 야박하게 대한 결과 집이 연못에 잠기게 된다.¹³⁾

일본 여러 지방에 남아있는 ‘이인 전설’에서도 이인은 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재앙도 가져다주는 양면적 존재이다.¹⁴⁾

그 전형적인 예가 코우보우대사의 영장 88개소를 순례하는 시코쿠 지방의 ‘헨로(遍路)’에서의 순례자들과 그에 관련된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순례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려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잔인한 보복과 재앙을 안겨준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의도는 복을 받기 위함이지만, 불행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면에 더 치우치게 마련이다.¹⁵⁾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신사에서 의례로서 행하는 ‘쓰이나(오니하라이)’나 가정에서 행하는 ‘마메마키’ 모두가 귀신으로서의 ‘이인’을 섬기는 행위인 동시에 쫓는 의례이다. 서로 모순적인 ‘섬김’과 ‘쫓음’, ‘수용’과 ‘배제’가 동일한 존재에 대한 다른 행위방식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이 점은 ‘이인’의 현대적인 예로 드는 종교인이나 예술인, 상인, 절인, 방랑자(심지어 야쿠자)들로 보는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 얼핏 생각하기에 절인이나 야쿠자라면 ‘쫓음’과 ‘배제’의 대상일 수도 있을 이들을 오리구치는 ‘신’이나 ‘신의 대리인’으로 정중히 대우

12) 김영돈·현용준, 『제주도 무당굿놀이』, 1965, 359~388면.

13) 김승찬,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 78~81면, 268~269면.

14) 小松和彦·關一敏 編, 앞의 논문, 214면.

15) 中山和久, “異人歡待の源泉について”,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小松和彦選歴記念論集刊行會, 2008, 22~26면

를 받는 존재들로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일본인들 사이에 ‘손님’ 관념이 아직 남아있어, 그들을 잘 대해줘야 자신들의 사회나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위기극복을 위한 이문화 수용

‘처용랑 망해사조’가 유독 역사학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당대의 불안정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이 현강왕 시절에 수도권은 부유와 향락을 누렸지만 지방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왕이 출유(出遊)하여 다소간 어지러운 지방을 중앙문화로 포용 내지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고 보기도 한다.

처용이 나타난 당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를 구명하려면 ‘처용랑 망해사조’의 서사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처용이 경주로 입성하여 왕정을 보필하고,¹⁶⁾ 역신을 굴복시키며, 그리고 끝내 산신(지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신라가 멸망한다. 것처럼 서사의 앞머리와 끝꼬리가 ‘평화(번영) / 멸망’으로 상충하는 ‘처용랑 망해사조’에 그려진 당대 신라는 세기말적 위기가 첨예화된 과도기다.¹⁷⁾ 동해용이 나타난 개운포는 중앙이 아닌 주변부의 지역으로서 중앙문화에 대하여 이질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지역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런 주변문화에 관심을 기울인 당대 신라의 사회상황은 모종의 이행기 내지 과도기(liminality)로,¹⁸⁾ 당대 사회는 규범적 공동체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감성적 공동체인 ‘코뮤니타스’였다.

그런데 처용을 수용하는 것은 그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문화(異文化) 수용과 이해의 과정으로, 그 과정에는 범상치 않은 ‘혼란’과 ‘차폐(遮蔽)’, 그리고 그 정체를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간파(看破)’와 ‘통찰’이 개입한다. 시야를 가리는 구름과 안개의 조화를 본 일관은 그것이 동해용의 소행임을 알아차리고, 아내가 사통하는 현장을

16) 처용의 임무를 ①울산의 지역사정에 관한 자문, ②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좌, ③역신(疫神)을 물리치는 무력으로서의 보좌, ④의무(醫巫)로서의 보좌, ⑤주술과 가무로써 기상의 변괴를 물리치는 직책, ⑥왕권 강화와 국가 수호, ⑦불교신앙적 관점에서 호국(護國), 호법(護法)의 용(龍)으로 왕정을 보좌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임무와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임무로 나누어볼 수 있다.

17) 김열규, 앞의 논문, 14면.

18) V. Turner, 「Passage, Margins and Poverty」, Dramas, Fields and Metaphors, Ithaca, 1974, p.232.

본 처용은 그것이 역신의 소행임을 간파한다.

여기서 ‘혼란’이나 ‘차폐’를 은유하는 “구름, 안개”와 “역신의 침범”은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서 정체성의 이중성, 경계성, 중간성이 발생하는 혼종(hybridity; 混種)이다. 그런데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는 처용을 수용함으로써, 즉 이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비교하자면, 일본에서 ‘방문신’이 인간세계에 찾아오는 것도 해가 바뀌는 시기, 즉 과도기이다. 야나기타 구니오가 30년간에 걸쳐 일본 전국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책 『종합 일본민속어휘』의 「소정월의 방문자」에서 소개한 70여 신들은 설달 그믐날로부터 정월 15일 사이에 인간세계를 방문한다.¹⁹⁾ 한 해가 바뀌는 과도기는 농사와 가정의 풍흉(豊凶)과 길흉(吉凶)이 정해지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묵은 것과 오염된 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것과 정화된 것을 받아들인다.

코마쓰의 ‘이인론’에 대한 해제를 쓴 카와모리 히로시는 특별히 “결국 민속사회는 외부존재인 이인에 대해 문을 닫고 교통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인을 일단 흡수한”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어 인용하고 있다.²⁰⁾ 말하자면 이인의 수용은 자신들의 사회를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처용랑 망해사조’도 끝부분에 이르면 산신(지신)의 춤이나 노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숨겨진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흥망의 기로에 섰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맺어지고 있다. 이는 모처럼 처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과도기의 위기 극복, 즉 ‘문명’과 ‘문화’에 의한 순치가 지속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임을 역설하는 후일담의 형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비극적 결말은 도리어 앞서 그려진 처용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 보인다.²¹⁾ 결국 이는,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화가 닥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후일담인 것이다. 결국 ‘처용랑 망해사조’는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이문화 수용 및 이해가 절실함을 주제로 밀어올린 서사이며, 그 가

19) 芳賀日出男, 앞의 책, 257面.

20) 川森博司, “書評 小松和彦, 『異人論』, 青土社, 1985”, 日本學年報 第1輯, 1988, 102~103面.

21) 김열규, 앞의 논문, 19面.

운데 이문화 수용모델로서 처용을 수용하는 과정이 그려진 것이다.

3) 이문화 수용의 자발성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동해용의 조화를 불교문화로 순치하고, 역신의 침입을 관용으로 제압한다는 설정은 ‘문화’, 혹은 ‘문명’으로 ‘야만’과 ‘일탈’의 제압이며, ‘절 짓기’나 ‘노래와 춤’ 그 대립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동해용이 조화를 부려 길을 막는 것은 지역문화를 홀대해온 중앙문화에 대한 저항이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리비도적 무의식’을 억압해온 이성적 의식에 대한 저항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저항보다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처사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반적인 독법대로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처용이 나타나자 험강왕이 그를 반기고, 처용이 노래하며 춤을 추니 역신이 감복했다고 읽어서는 곤란하다. 그와 역으로 험강왕은 지역문화의 저항이 예상되는 순행에 나섰으며, 동해용의 아들이라는 이인을 맞아들여 단지 ‘절 짓기’라는 환대에 머물지 않고 왕을 보좌하는 임무까지 맡긴다. 과연 처용은 자신이 왕에게서 받은 환대에 보답하는 방식인 ‘춤과 노래’로 역신을 감복시켜 퇴치시켜 그에 보답한다.

어차피 ‘주변문화’나 “무의식” 모두 자기 문화의 ‘다른 편’이다. 자신도 언젠가 이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인 문화를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처용랑 망해사조’의 속뜻이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지향하는 저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인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여 드디어는 ‘문화접변’에 이르게 함으로써²²⁾ 자아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용랑 망해사조’는 ‘혼종’ 이상의 종교적, 예술적 창조를 그려 보인 셈이다.²³⁾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해 구태의연한 기존문화를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문화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러시아 형식주의자 슈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 (foregrounding)’로 자동화를 방지하여 시적(詩的) 창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²⁴⁾ 그

22) 橋 弘文, “二つホスピタリティ”,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小松和彦遷曆記念論集刊行會, 2008, 46面.

23) 橋 弘文, 위의 논문, 47面.

24)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문화의 두 얼굴』, 262~263面.

것이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는 신성성(神性性)의 현현(顯現), 혹은 노래²⁵⁾²⁶⁾와 춤을 곁들인 ‘이인 환대’로 표현되었다.

그러면 과연 동해용이나 역신은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악’이라는 것은 ‘선’의 대립개념이라기보다는 흔히 자신을 ‘선’이라 믿는 주체가 자신과 맞서는 타자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덕목이다. 것처럼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이인을 ‘악’으로 규정하거나 내부의 이질적 존재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자신이 취약하기 때문이다.²⁷⁾

실제로 많은 사회집단이 존재하지도 않는²⁸⁾ ‘악’을 지닌 ‘적’을 내부에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²⁹⁾ ‘악’으로 보는 이인이나 이인 문화는 심리적으로 자아의 다른 부분, 즉 스스로 ‘은폐하고 싶은 부분’, ‘취약한 부분’이다.

코마쓰가 정리한 이인 카테고리 중 세 번째에 속하는 예를 다치바나 히로후미는 깡패나 파락호 등 무법자의 집단과 같은 이미지라 보았다. 다치바나는 이들이 호족의 자제이거나 절이나 신사에서 쫓겨난 신인(神人)이나 동자의 후예로서 고대율령제의 붕괴에 의해 생겨난 후 정상적인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살아가다, 모종의 종교적, 예술적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존재라 보았다.³⁰⁾ 다치바나가 이렇

25) 처용가는 ①의례의 한 부분이던 무가 중 일부, ②법행룡(法行龍)이 창한 일종의 진언(眞言)이요 불교적인 주문, ③역신 퇴치 주술의 핵을 이루게 된 주사, ④서사무가에 삽입된 주술 무가, ④강자에 의한 아내의 정조 유린이란 비애를 골계로 표현한 민요격 향가, ⑤동해의 용신제의(龍神祭儀)에서 불리던 무가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이를 무가(巫歌)로서 악신(惡神)을 보내는 ‘뒤틀풀이’로 여기는 견해는 그 근거를 무속에서의 악신도 달래서 보낸다는 여유와 예지, 벽사(辟邪)의 태도에서 찾는다.

26) 간통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다리 수를 세기로 묘사하는 것은 민요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법이다. 그런데 처용은 “이미 빼앗긴 걸 어찌하겠느냐”는 체념 위에 춤과 노래로 대처하는 여유를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역신을 감동시키고 갈등을 해소한다. 『삼국유사』에는 「구지가」를 비롯한 「혜성가」, 「왕거인의 노래」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천지의 운행을 바로잡거나 하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여러 군데 그려진다.

27)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앞의 책, 95면.

28)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위의 책, 민음사, 2003, 95면.

29) 죽음, 병, 광기와 관련된 존재로서의 ‘적’은 미셸푸코의 말처럼 근대의 탄생과 더불어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다.

30) 橋 弘文, “無法者とその身体”, 小松和彦, 『記憶する民俗社會』, 人文書院, 2000, 231~236면.

게 볼 수 있었던 근거는 코마쓰가 물의 세계에 사는 ‘갑빠[河童]’라는 요괴의 속성을 밝힌 대목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갑빠’의 이미지는 치수(治水)를 위한 토목, 건축 공사에 종사하는 하급노동자를 의미하는 ‘천민(川民)’으로, 주위로부터 천시를 받는 사람들의 존재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에 사는 요괴로 여겨지는 ‘마귀할멈’의 이미지 배후에는 산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산민(山民)’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³¹⁾ 물론 그런 이미지는 존재 자체나 실제적 삶의 실상보다는 바라보는 편이 임의대로 만들어낸 것이라 보아야 한다.

‘처용랑 망해사조’에 일시적인 ‘악’으로 치부되는 동해용이나 역신 역시 기존의 신라사 회라는 집단의 취약성을 드러내주는 존재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인’이란 결국 자아의 다른 면을 투사해 스스로 만들어낸 ‘내부의 적’이거나 ‘취약한 존재’다. 처용설화에서의 동해용이나 처용, 그리고 역신³²⁾ 모두가 당대 신라인의 의식이 투사됨으로써 형상화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교구(交媾)가 ‘악’에 의한 침범이 아니라 실은 자신과의 싸움인 셈이며, 처용의 화상을 문에 그려 붙여 역신을 쫓는 것은 ‘악’으로 여기던 당대 신라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하려는 처사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인’을 대하는 ‘간파’와 ‘통찰’이란 낯설고 위험한 이방인이나 적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지혜를 말한다.³³⁾ 그래서 처용설화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협소한 자아를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준 서사라 하겠다.

3. 이문화의 현대적 수용

1) 이인문화의 수용

위와 같은 ‘처용랑 망해사조’의 이인 내지 이인 문화 수용을 현대에 대입해보면 다음

31) 川森博司, 앞의 글, 103面.

32) 역신은 일반적으로 열병신(熱病神=천연두·홍역·학질을 일으키는 질병신)으로 보지만 ①병든 도시의 유한공자(遊離公子), 곧 타락한 화랑의 후예의 상징, ②탐락과 방탕 풍조에 빠져 있던 반도덕적인 패륜아의 상징, ③나라를 병들게 하는 어두움과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3) 이문화를 갖고 온 이인 처용을 구태여 빅토르 터너 식으로 나누어 보자면 ‘주변인’에 해당하고, 역신은 ‘아웃사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식이 만들어낸 타자인 점에서 이 두 존재는 실제 다르지 않다.(V. Turner, Op. Cit., p.233)

과 같은 사회 구성원과 그들의 문화가 머리에 떠오른다.

첫째는, 한국을 일시적으로 다녀간 경우 뿐 아니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내지 그들의 문화이다. ‘내부의 타자’로 여겨지는 화교를 비롯하여,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의 신부 등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다음은 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으나 이질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온 남사당패나 각설이패, 무당이나 백정, 나아가 장애인이나 한센 병 환자, 성적 소수자 등 및 그들의 문화이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존재들을 대할 때 한국인은 자의식의 어두운 부분을 투사하여 이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으로는 ‘국제화’와 ‘인권 개선’을 대내외에 표방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외국인 중 가난한 제3세계에서 온 근로자는 무관심과 냉대로 대하고, 심지어는 다문화가정의 동남아 출신 며느리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고민한다.

한국인들이 그들을 이인으로 여기는 까닭은 지난날 일제나 강대국에 의해 시달리던 어두운 기억 때문이다. 그들에게 당하던 억압과 수모의 떠올리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영뚱한 상대인 ‘취약한 존재’에게 투사한다.

그러면서도 남의 나라에 가서는 도리어 이인으로서의 한국인의 조상, 그것도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이 환대받았다는 근거를 찾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기도 한다.

설성경은 1996년부터 장성군으로부터 홍길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연구에 나섰다.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나 오키나와로 건너간 실존인물이라며 일본 오키나와 하테루마지마에 있는 ‘홍길동 도래기념비’와 이시가키지마의 ‘모자 이별제단’, ‘후루수토 유적’ 등이 관련 유적이며, 미야코지마의 동굴, 우물, 사당 등이 홍길동 집단이 원주민과 처음 교류한 흔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장성군은 1999년부터 <홍길동 축제>를 개최하고 그와 별도로 야에야마박물관에 한국에서 가져간 전통농기구를 전시하기 시작했다.³⁴⁾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콘텐츠화 과정에 오키나와의 하테루마지마나 이시가키지마, 미야코지마 등의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홍길동이 실존인물이고 그가 전래한 사실이 분명해서라기보다, 일본인들이 평소 지

34) 김병인,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2004, 214~221면.

냈던 이인관(異人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일본은 진시황의 사자로 일본을 방문했다는 서복이 쿠마노나 후지산에 정주했다고 설정했다. 그로써 중국문화를 동경하면서도 일본을 불로장생의 이상향으로 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서복의 현대적 계승에 특히 적극적인 사가현은 서복의 전설을 따라가며 지명(‘부바이’)과 유적(우물), 자연물(신목 ‘바크신’, 불로장생약 ‘후로후키’)을 소개하거나 서복장수관을 지어 기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묘소’³⁵⁾를 보존하는 지역이 있고, 근대화기를 지나오면서 접촉빈도가 높아진 외국인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코베시의 ‘이진칸(異人館)’과 요코하마시의 ‘외국인 묘지’가 있다.

다치바나 히로후미는 ‘이인 환대’의 전통으로부터 현대 관광에 필요한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의 정신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소극적인 ‘접대’에서 벗어나 현대 관광에 필요한 덕목 내지 매너를 발전시켜 이미지를 제고와 비즈니스에 응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³⁶⁾

이처럼 이인과 이인 문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폐쇄적인 자아를 반성하거나 혹은 낡고 오염된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신성한 것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문화 축제

울산시는 처용을 기리는 ‘처용제’ 하나만으로도 이른바 ‘해항도시(海港都市)’란 이름에 값한다.

다만 끊임없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처용제’의 현대적 계승 방안은 울산시로서도 여전한 숙제거리다. 과연 다시 들여다보면, 기왕의 <처용문화제>에서는 개운포 성지에 제단을 마련해 처용을 모시는 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

35) 예수의 무덤은 아오모리현 산헤이군 헤라이촌(靑森縣 三戶郡 戶來村)에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헤라이촌이란 이름이 ‘헤브라이(히브리)’에서 온 말이라 주장한다. 입구에 ‘그리스도의 묘지’란 간판이 있고 두 개의 무덤 중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동생 이기리스의 묘라 한다. 무덤 옆 ‘그리스도 고향 전승관(傳承館)’에는 옛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농기구와 풍속물을 전시되어 있고,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6월 첫 주일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그리스도 마츠리’를 개최한다.

36) 橋 弘文, “二つホスピタリティ”,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小松和彦選曆記念論集刊行會, 2008, 41~42面.

고 있지만³⁷⁾ 유감스럽게도 ‘처용무’나 ‘처용가면 페스티벌’, ‘처용촌 개장’을 빼곤 처용과의 친연성(親緣性)이 부족해 왜 축제를 개최하는지 의의조차 느끼기 어렵다.

처용설화에 나타난 이인 수용 과정은 일본의 이인수용이나 방문신 환대에 뒤지지 않는 이문화 수용의 모델이며, 단지 이문화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차원을 높인 문화적, 종교적, 예술적 창조의 과정마저 보여주고 있다. 낯설고 희귀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은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³⁸⁾

따라서 울산시는 이제부터라도 처용 설화의 라이트모티프를 살려 새로운 ‘이인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러자면 ‘이인축제’에는 처용을 비롯한 중국인, 일본인 등 역사 속의 이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동남아 근로자를 비롯하여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머느리들, 유학생, 그밖에도 각국에서 온 이인들의 문화를 시범적으로 전시하고 공연을 유치하여 소개와 감상,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³⁹⁾ 그로써 울산시 스스로 ‘이문화 수용의 도시’, 혹은 ‘호스피탈리티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집적해나가야 한다.

참고로 일본 후쿠오카시는 ‘돈다쿠 마츠리’에 외국인 퍼레이드와 ‘아시아의 달’ 행사⁴⁰⁾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달’에는 아시아 각국의 민화를 영어와 일본어

37) ‘처용무’, ‘처용가면페스티벌’, ‘전국탈춤경연대회’, ‘거리퍼레이드’, ‘국제민속춤페스티벌’, ‘선사 문화 학술심포지엄’, ‘물 당기기 놀이’, ‘백만시민 줄다리기’, ‘마두회’, ‘신화와 설화전’, ‘처용촌 개장’, ‘울산품물전’, ‘처용관련 연극공연’, ‘조선줄타기공연’, ‘내가 살고 싶은 집짓기대회’, ‘한글백일장’, ‘처용배 전국인공암벽대회’, ‘풍물경연대회’, ‘전국무용대회’, ‘전국서예회화대회’, ‘민속놀이 마당’, ‘암각화 탁본’, ‘열기구 시연’

38) 한진수, “한국사회와 아프리카 문화의 상상과 소비”, (문옥표 외, 『우리 안의 외국문화』, 소화, 2006, 154면.

39) 참고로 이문화 수용을 모티프로 한 축제로는 인천시의 <중국의 날 문화축제>, 양평시의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청주시의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충주시의 <충주 세계무술 축제>, 음성군의 <전국 품바축제>, 안동시의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부산시의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부산시 동구의 <상해거리 축제>, 광주시의 <세계 민속예술 축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날 문화축제>나 <상해거리 축제>는 이인으로서의 중국인의 문화를, <전국 품바축제>는 소외된 계층인 각설이들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

40) 일부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인도네시아 그림자그림 워크숍 「귀신의 그림자 그림 연극을 만들자」>, <아시아의 나라들과 식생활 문화의 교류>, <스토리텔링 “아시아”>, <스페이스 매직! 네 팔 요리를 만들어 보자!>,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우호 협회 2008년 내셔널 데이 축하회>, <예술 교류 택배우편 2008 「아시아먼스 예능 워크숍」>, <裏千家淡交會(우라센케담코우카이) 후쿠오카

로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아시아’를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고 아시아의 놀이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울산시가 처용제를 이문화 수용 및 이인 환대 정신을 살린 성공적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지역적 관련성이 적은 ‘줄타기공연’, ‘서예회화대회’, ‘거리퍼레이드’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대신에 ‘처용’ 이미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려 이문화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이고,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실천하려는 시민자원봉사자를 주체로 이인 환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장애인, 한센 병 환자, 성적 소수자 등이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이문화 수용과 문화적, 종교적, 예술적 재창조 내지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처용 설화의 현실적 재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로써 울산시, 나아가 그를 따르는 한국의 해양도시들은 명실상부하게 국제화된 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확고히 할 계기를 얻을 것이다.

Ⅲ. 결론

이 글은 처용 설화를 이문화 수용의 모델로서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씌어졌다.

이인으로서의 처용을 수용하고 역신을 퇴치하도록 배려한 과정에 드러난 것은 지역문화를 확대하는 중앙문화에 대한 저항과 무의식을 억압하는 의식에 대한 저항이다. ‘절 짓기’나 ‘노래와 춤’ 같은 문화와 문명으로 야만과 일탈을 제어하는 처방은 이인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문화를 활용함으로써 얻은 한 차원 높은 종교적, 예술적 창조로 귀결되었다.

지부 아지아만스체리티 다과회), <무용단과의 무용 체험 워크숍>, <스터디 「인도네시아 교과서에서 본 일본」>, <후쿠오카현·강소성 우호 교류~강소성 문화 워크~강소성 전통공예 공연~모자이크 그림·자수의 실연~바다~>, <힙포패밀리클럽·트랜스내셔널 교류회 다도>, <유학생과 교류하자 인도네시아 컬처데이>

결국 ‘처용랑 망해사조’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인 문화의 수용이라는 처방이 강조된 설화라 할 수 있다. 그 설화는 울산시의 처용제를 이인축제로 변모시켜 외부에 대한 인식의 개방과 자아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울산시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화와 개방화, 다문화 수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손진태선생전집6, 1981(학풍 2~3, 1949의 영인
본)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82.
- 김열규, “「처용랑 망해사」의 민속학적 의미”, 처용연구, 1985
- 김영돈·현용준, 『제주도 무당굿놀이』, 1965.
- 金東旭, “處容歌研究”, 東方學誌5, 1961.
- 張濤根, “處容說話의 研究”, 國語教育 6, 1963.
- 玄容駿, “處容說話放”, 國語國文學 39·40 합병호, 1968.
- 李佑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 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察”, 震檀學報 32, 1969.
- 徐大錫, “處容歌의 巫俗的 考察”, 韓國學論叢 2, 1975.
- 趙東一, “處容歌舞의 演劇史的 理解”, 演劇評論 15, 1976.
- 金承璨, “處容說話와 그 歌謠의 研究”, 韓國文學論叢 4, 1981.
- 홍경표, “용신설화와 그 상징체계 시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 1985.
- 김승찬,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
- 문옥표 외, 『우리 안의 외국문화』, 소화, 2006.
- 김병인,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2004.
- 芳賀日出男, 『日本の民俗』, クレオ, 1997.
- 小松和彦·關一敏 編, 『新しい民俗学へ』, セリか書房, 2002.
- 橋 弘文, “無法者とその身体”, (小松和彦)記憶する民俗社會, 人文書院, 2000.
- 小松和彦還曆記念論集刊行會,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2008.
- 川森博司, “書評 小松和彦, 『異人論』, 青土社, 1985”, 日本學年報 第1輯, 1988.
-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문화의 두 얼굴』, 민음사, 2003.
- V.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Passage, Margins and Poverty,
Ithaca, 1974.

Re-explanation about Cheo-Yong(處容) story as a model of accepting foreign culture

Kim, Jung Ha

This treatise aims at the re-explanation about Cheo-Yong story which has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for long time. Than any other explan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Cheo-Yong's identity because all the motifs, images and themes in the Cheo-Yong story is controlled with it.

As an foreigner who is introduced a son of Dragon-king of East sea, Cheo-Yong has extraordinary ability. Really Cheo-Yong displays his ability to drive away devil who invades into human society even into Cheo-Yong's bedroom which situation is depicted metaphorically.

Because the depiction of deriving devil is metaphor, the leitmotif(主旨) of the Cheo-Yong story is not merely expelling devil from human society but curing and recovering some defaults and weak points of the society into which Cheo-Yong is invited thorough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So,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which is shown in Cheo-Yong story is the proper model in a society to accept and understand an unfamiliar and strange culture from outside. Comparing with Japanese folk tales and scholars' explanation, the feature of such model becomes to be manifested. At results, the unfamiliar man's identity and his contribution can be an opportunity to renew a society actually.

주제어(Key Words)

처용, 이인, 이문화, 울산, 이인축제

Cheo-Yong, foreigner, foreign culture, Ul-San, foreign festival